

# 국제인권 뉴스레터

2019 FEBRUARY [제2호]

## 유엔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발의한 53개 결의안 채택

[Readmore](#)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7차 회의

대한민국의 17·18·19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발표

[Readmore](#)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4차 회의

대한민국 등 5개국 후속보고서 검토

[Readmore](#)



## 유엔, 아동권리 보호 촉구

유엔 사무부총장, 아동성폭력 근절 노력 촉구  
유엔, 세계 여자아이의 날 기념 공동성명 발표

[Readmore](#)



## 국제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노력

유엔 특별보고관, 여성살해 근절 촉구

[Readmore](#)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협과 환경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 기후변화협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 이행지침에 합의  
세계보건기구, 아동 10명 중 9명은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된다고 발표

[Readmore](#)



##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

유엔, 이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

[Readmore](#)



## 기업과 인권

페이스북, 미얀마 내에서 인권침해 방지노력 부족했다고 인정

[Readmore](#)



## 유엔,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

유엔,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프레임워크 설립

[Readmore](#)

## 유엔, 인권옹호가 탄압 중단 촉구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가 선언' 이행 촉구  
유네스코, 언론인 살해범에 대한 정의구현 촉구하는 캠페인 개시

[Readmore](#)

## 성소수자 권리 증진

유엔 전문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과도한 폭력에 대해 비판  
뉴욕시,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性) 선택 허용

[Readmore](#)

FEBRUARY CALENDAR

MARCH CALENDAR

APRIL CALENDAR



## 유엔, 아동권리 보호 촉구



## 유엔, 세계 여자아이의 날 기념 공동성명 발표

세계 여자아이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Girl Child, 10.11)을 맞아 Maud De Boer-Buquichio '유엔 아동 성적착취 및 매매 관련 특별보고관'등 관련 분야 유엔 전문가들은 여자아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여자아이들이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예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문맹률이 높고, 의료서비스를 적게 받고, 더 빈곤합니다.** 또한, 분쟁 및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강제결혼, 성노예, 성매매, 강제임신 등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당면하는 어려움들은 가부장적사회에서 비롯된 젠더 역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유산 상속 및 결혼가능 연령 등의 사안에서 여자아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과 아동결혼 등 여자아이에 해로운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FPA) 대표는 아동결혼과 청소년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 하는 여성청소년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여성청소년의 건강, 교육, 기술, 리더십에 투자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유엔 사무부총장, 아동성폭력 근절 노력 촉구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0세 이하 여자아이 및 청소년 1억 2,000만 명이 강제로 성관계 및 성적 행위(sexual acts)를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세 이하 여성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수많은 아동이 성적 학대와 착취에 시달리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아동성폭력을 막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신경 써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6번 목표는 **2030년까지 학대, 착취, 인신매매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고문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Mohammed 사무부총장은 각국정부들이 이러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ink**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UN event sheds light on the unthinkable \(UN News. 10.3.\)](#)

## 유엔 전문가, 아동을 이민자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야기한다고 발표

Renate Winter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위원장 등 유엔 전문가들은 아동을 불법체류자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은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각국이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의 경우 출신국에서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을 강제로 분리시킬 경우 이 트라우마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아동의 경우 이 경험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 없이 남겨진 아동들은 성폭력 등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Link** [Children separated at border, suffering alarming and prolonged effects: UN rights experts \(UN News. 10.19.\)](#)

[메인화면 >>](#)



## 국제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노력



UN Photo by Albert Gonzalez Farran

**스페인 대법원, 스페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스페인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후 남겨진 딸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스페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결국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스페인 경찰, 행정당국, 사법부에 딸을 보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젠더기반 차별(gender based discrimination)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14년 이 여인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스페인 정부에게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2018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스페인이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이고, 이 협약이 스페인 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부가 피해 여성에게 60만 유로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 인권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milestone)이라며 이 결정을 환영하고, 다른 권고들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여성살해 근절 촉구

세계적으로 배우자 및 연인이 연루된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Dubravka Šimonovic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전문가들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1.25)를 맞아 여성 살해(femicide) 및 젠더기반 여성 살해(gender-related killings of women)의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미투(#MeToo)** 및 **니우나메노스(#NiUnaMenos)** 등의 여성운동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변화로 항상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를 비롯한 젠더기반 폭력은 많은 국가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각국이 이러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미투(#MeToo)** 및 **니우나메노스(#NiUnaMenos)** 등의 여성운동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변화로 항상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를 비롯한 젠더기반 폭력은 많은 국가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각국이 이러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ink** Experts call for end to global epidemic of femicide (OHCHR 11.23)

## 아일랜드, 정신적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 발효

아일랜드는 ‘제2차 국가 가정, 성적, 젠더 폭력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에 가정폭력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관련자에게 “심각한 영향(serious effect)”을 준 행동, 이성적인 사람이 보기에 관련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행동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발효된 이 가정폭력법에서 “심각한 영향”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위기감 등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이거나 시민적 파트너(civil partner), 혹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여성의 31%가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23%는 배우자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가정폭력법이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Link** Ireland psychological domestic abuse law takes effect (Jurist. 1.2)

[메인화면 >>](#)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협과 환경권



UN Photo by Kibae Park

### 세계보건기구, 아동 10명 중 9명은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된다고 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10명 중 9명은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뇌 발달이 저하되는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에만 60만 명의 아동이 **대기오염 때문에 발생한 급성 하기도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은 아동에게 천식, 암, 신경발달 저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아동은 어른보다 빠르게 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되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조산할 확률이 높으며, 신생아 또한 미숙아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 사용, 에너지효율적인 주택 건설, 에너지효율적인 도시계획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기후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기후변화, 생태계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으로 인해 4초당 1명, 매년 8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David R. Boyd '유엔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 등 유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각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수 십 년 간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도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식수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이 많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yd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행가능한 해결책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1.5°C 상승하는 것과 2°C 상승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며, 기온이 2°C 상승할 경우 수 백 만 명이 인권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yd 특별보고관은 또한, 유엔총회에서 환경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특히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155개 국이 환경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00여 개 국은 환경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각국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유엔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ink** Climate change: Act now or pay a high price, says UN expert (OHCHR 10.8)  
Global warming report, an 'ear-splitting wake-up call' warns UN chief (UN News. 10.8.)  
Environmental hazards kill 8 million a year: UN expert urges global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OHCHR. 10.25)



## 유엔 사무총장,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 호소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도망치는 기후변화(runaway climate change)”를 막는 것이 아직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각국에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온 상승폭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1.5°C에서 멈추려면 교통, 토지,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 부간 기후변화 패널(IPCC) 보고서에서도 인류가 재앙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실천해야만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Guterres 사무총장은 **삼림 벌채를 근절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국 정부에게 은행이 녹색금융(green financing)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Link** With rapid, far-reaching changes, world can prevent climate change worst-case scenarios – UN chief (UN News. 10.13) Global Warming of 1.5°C (IPCC 보고서)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협정에 관한 이행지침(rule-book)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명성 프레임워크(transparent framework)가 마련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2020년부터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1,000억 달러를 동원하고, 2023년부터 공동으로 기후변화행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패션업계가 기후변화행동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노르웨이, 독일, 세계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Link** At COP24, countries agree concrete way forward to bring the Paris climate deal to life (UN News 12.15)

[메인화면 >>](#)



## 성소수자 권리 증진



### 뉴욕시,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性) 선택 허용

뉴욕의회는 출생증명서 **성별 표기란에 남성·여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X”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뉴욕 시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민들은 자신의 성을 남성, 여성, 혹은 X로 변경 신청할 때 공증받은 본인의 성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을 변경하려면 의사의 선서진술서(affidavit)가 필요했던 과거보다 개선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변경과정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성전환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주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

미국 위스콘신주는 주립대학 소속 연구원들이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시민적자유연합(ACLU)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건강보험 거부는 연방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위반이라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은 이 트랜스젠더들에게 주정부가 780,5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건강보험에서 트랜스젠더를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명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ink](#) Jury awards \$780,500 in Wisconsin transgender rights lawsuit (Jurist. 10.12.)

## 유엔 전문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과도한 폭력에 대해 비판

Victor Madrigal-Borloz ‘유엔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에 따른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유엔총회에서 트랜스젠더 및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trans and gender-diverse people)이 과도하게(disproportionately) 폭력의 희생량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어릴때부터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marginalisation)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Madrigal-Borloz 독립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국 정부가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법적 공백은 이들을 낙인찍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가가 이들의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혼, 수술 등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adrigal-Borloz 독립전문가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비병리화(depathologization)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할 것을 각국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Link](#) Levels of violence against trans people “offend the human conscience”, says UN rights expert (OHCHR 10.25)

[메인화면 >>](#)



## 유엔, 인권옹호가 탄압 중단 촉구



##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가 선언' 이행촉구

Michel Forst '유엔 인권옹호가 관련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가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채택 20주년을 맞아 각국 정부가 선언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각국이 '인권옹호가 선언'에 따라 인권옹호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옹호가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려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2015-2017년 사이 1,000명 이상의 인권옹호가들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Forst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가를 살해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주며, 결국 인권옹호가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옹호가들은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이웃, 우리 부모, 우리 자신도 인권옹호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유엔 전문가, 국가주도의 강제실종 비판

Bernard Duhaime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CED) 위원장은 최근 국가들이 외국에서 정부 반대인사를 납치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테러 작업 과정에서 소위 '단기 강제실종' 사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Duhaime 위원장은 납치의 목적이 정치적 반대파 탄압이든 소위 대테러 활동이든 간에 개인을 강제실종을 시키는 순간 국가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납치된 사람이 단기 실종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Jamal Khashoggi의 충격적인 사례처럼 실종된 이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Duhaime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강제실종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Link** UN experts deeply concerned by 'new practice' of State-sponsored abductions (OHCHR. 10.18)

## 유네스코, 언론인 살해 가해자에 대한 정의 구현 촉구하는 캠페인 계획

'세계 언론인에 대한 범죄 근절의 날(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 11.2)'을 맞아 유네스코는 '#진실은 절대 죽지 않는다 (#TruthNeverDies)'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일에 한 명 씩 언론인이 살해당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언론인 살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살해당한 언론인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Link** Bring killers of journalists to justice: UN agency seeks media partners for new campaign (UN News. 10.18.)

메인화면 >>



## 기업과 인권



Photo by Khin Ohmar

### 페이스북, 미얀마 내에서 인권침해 방지노력 부족했다고 인정

미얀마 내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수 십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에 대해 대량학살에 준하는 잔인한 무력탄압을 자행하여, 로힝야족 수 천 만 명이 사망하고, 70만 명은 난민이 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혐오 표현(hate speech)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1,800만 명에 달하며, 다수 국민들에게 페이스북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매우 큼니다. **페이스북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사 플랫폼이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페이스북이 미얀마에서 “괴물로 변했으며” 불교 극우주의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자사 정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합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검열할 미얀마어 전문가를 고용하고, 특정 무장단체 관련 포스트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금지단체 선정시 정부입장만 반영하는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의 사진들은 Progressive Voices 에서 활동중인 인권운동가 Khin Ohmar씨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Link**

Facebook used to 'incite offline violence' in Myanmar, says report (BBC. 11.6.)

Facebook says it did not do enough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 (Jurist 11.6)

Facebook wades into world's longest civil war, but does it know what it's doing? (CNN. 2.9.)

UN: Facebook has turned into a beast in Myanmar (BBC. 3.13.)



## 유엔 전문가, 사우디 언론인 실종을 이유로 사우디 개최 투자회의에 불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지 표명

Jamal Khashoggi 실종사건 발생 이후 HSBC, Uber 등 민간기업, IMF 등 30여개 기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 및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고위급 투자 회의에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Dante Pesce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이러한 불참 결정은 **기업이 어떻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영하였습니다.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기업들도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 중인 국가에서 시민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civic space)을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nk** UN experts welcome business leaders standing up for missing Saudi journalist (OHCHR. 10.19)  
UN rights experts stand with businesses protesting Saudi journalist's disappearance (UN News. 10.19.)

## 티파니앤코, 새로운 다이아몬드 출처 공개정책 발표

세계적인 보석업체 티파니앤코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다이아몬드의 출처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보석업체들은 다이아몬드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투명성은 농산물 등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광산업체들은 분쟁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고문, 강제노동, 아동노동,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석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투명성 확보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 는 보석업체들이 책임감 있게 다이아몬드와 금을 매입하기를 촉구하는 '#반짝임의 이면(#BehindtheBling)'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티파니앤코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였습니다.

**Link** Tiffany and Co. Announces New Diamond Transparency (Human Rights Watch. 1.9.)

[메인화면 >>](#)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 124차 회의

###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등 5개국이 제출한 권고조치 이행에 관한 후속보고서 검토 완료 후 인권상황 개선되었다고 판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등 5개국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follow-up review)를 마치면서 이 국가들의 인권상황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14-2016년 사이에 이들 국가에게 전달한 우선순위 권고(high-priority recommendations) 이행상황에 대한 후속 보고서(follow-up reports)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5개국이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베냉은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몬테네그로는 전쟁범죄관련 특별 검사를 임명하였으며, 르완다는 명예훼손을 불법범죄화하고, 그리스는 법집행자들의 직권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Link** UN review reveals concrete progress on human rights, experts say (OHCHR, 11.1.)

### 자유권규약위원회,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채택 및 공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생명권(right to life)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 (제6조 관련)'를 채택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일반논평 제36호는 제6조에 대한 법적 지침(legal guidance) 역할을 하며, 사형제 폐지, 수감자 인권 보호, 보복으로부터 인권운동가 보호 등의 내용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명권과 다른 인권과의 관계,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 환경오염, 전쟁, 빈곤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권을 법적으로 좁게 해석하는데 대해 강경한 반대를 표하고, 존엄성있는 삶을 영유할 권리(right to life with dignity)를 강조하였습니다.

Yuval Shany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장은 생명권은 모든 다른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최상위 권리(the supreme right)'이며, 이번 일반논평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자세하고 권위있는 문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mmittee adopts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life (OHCHR, 10.30.)  
UN Human Rights Committee publishes new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life' (OHCHR 11.1.)

메인화면 >>



## 유엔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UN Photo by Kim Haughton

유엔 총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사안을 담당하는 3위원회가 권고한 53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 중에는 인권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결의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동권리에 관한 결의안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연례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 아동 노동, 아동 폭력, 아동 판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 간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국이 관용 및 존엄성 존중 교육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엔총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각국 정부에 장애아동 교육 관련 정보를 대체 의사소통 수단([alternative communication formats](#))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는 결의안도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관련된 결의안들도 채택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에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 인신매매 근절 관련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비사법적살인을 근절하고 생명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표현·집회의 자유 관련 결의안들도 채택되었습니다. 각국에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에 대한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인권옹호가들이 표현·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각국 정부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도 사용자에게 정보수집 현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권, 식량권, 인권분야 국제공조 강화, 인권향유의 주요 요건으로서의 평화, 민주적이고 평등한 국제질서 촉진 등의 주제에 관한 결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Link** General Assembly Endorses Landmark Global Compact on Refugees, Adopting 53 Third Committee Resolutions, 6 Decisions Covering Range of Human Rights (UN Meetings Coverage Press Releases. 12.17.)  
Third Committee Approves 11 Drafts amid Heated Debate over Death Penalty Moratorium, Use of Mercenaries, Efforts to End Cybercrime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1.13)  
Approving 8 Draft Resolutions, Third Committee Names 4 January World Braille Day, Also Tackling Intolerance, Illiteracy, Threats to Religious Freedom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1.13)  
Third Committee Approves 13 Draft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ing, Human Trafficking amid Protracted Votes on Human Rights in Syria, Myanmar(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1.16.)  
Third Committee Concludes Intense Session, Passing 8 Drafts as Children’s Rights, Reproductive Healt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ominate Discussion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1.20.)

[메인화면 >>](#)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7차 회의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7차 회의 개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제97차 회의를 열고 한국, 알바니아, 온두라스, 이라크, 노르웨이, 카타르에 대한 국가별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들이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특히 국가들의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ink**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opens ninety-seventh session in Geneva \(OHCHR. 11.26\)](#)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이 제출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7·18·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해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규약이행 상황과 관련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18-'22),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18-'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는 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네바대표부로 구성되었습니다.

CERD 위원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 여성이주노동자가 마주하는 성범죄 위협, 아동을 구금이나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Gay McDougall 한국 담당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지난 심의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의 번영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Link**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HCHR. 12.4\)](#)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17·18·19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발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17·18·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주여성과 아동 관련 권고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을 젠더기반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도 재검토하여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다문화가족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절차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찰 및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난민들에게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혐오표현 근절 노력을 배가하고, 특히 이주민 및 난민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난민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형법에서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ink**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es its ninety-seventh session \(OHCHR. 12.14\)](#)

[메인화면 >>](#)



##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



##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

유엔 회원국들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152개국이 찬성했으며, 5개국이 반대하고 12개국이 기권하였습니다. 글로벌 컴팩트는 2억 5,800만 명의 이주인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협력 프레임워크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미 2016년에 '난민과 이주인에 관한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에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는 국제 이주는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주 관련 국내정책은 국제적 협력이 있을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국제이주를 실현하기에 효과적인 조치들과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국제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해외이민을 가고 싶도록 만드는 국내문제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팩트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제공할 기술적, 경제적, 인적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유엔 메커니즘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한다고 해서 유엔이 개별국가에 특정 이민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글로벌 컴팩트는 조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력 프레임워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글로벌 컴팩트는 주민들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ouise Arbour '유엔 국제 이주 특별 대표'는 글로벌 컴팩트가 '이주할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입장에서 이민을 받는 것은 순이익(net gain)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Link** Governments adopt UN global migration pact to help 'prevent suffering and chaos' (UN News. 12.10)  
 World Leaders Adopt First-Ever Global Compact on Migration, Outlining Framework to Protect Millions of Migrants, Support Countries Accommodating Them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12.10)  
 Governments urged to put first ever UN global migration pact in motion, post-Marrakech (UN News. 12.11)

[메인화면 >>](#)



## 유엔,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



UN Photo by Mark Garten

### 유엔 난민최고대표, 1200만 무국적자에 대한 결단력 있는 행동 촉구

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1,200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교육권, 건강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직 25개국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적인 법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4년까지 무국적 상태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나는 소속되어 있다(#IBelon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무국적 아동 발생을 막고 국적법에서 여성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네스코, 난민 및 이주민 아동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유네스코(UNESCO)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및 이주민 아동은 학교에 출석하고 교육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난민들은 15억 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등록된 학교, 외국어로 되어있고 수적으로 부족한 교육자재 등이 난민들에 대한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저·중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의 90%를 유치하고 있지만 대응할 비용이 없어 난민 아동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주민 및 국내실향민이 가진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nk**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losing over 1.8 million school days, every day – UN report (UN News. 11.20.)  
Migration, displacement & education: Building bridges, not walls (유니세프 보고서)

## 유엔,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

일반적으로 이주민(migrant)은 이주 이유에 관계없이 고국을 떠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을 칭하는 반면, 난민(refugee)은 분쟁, 일상화된 폭력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고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40만 명 가량의 난민이 있으며, 특정 국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10개국이 전체 난민 중 60%를 수용하고 있고, 난민 수용국의 85%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10개국이 유엔난민기구(UNHCR) 자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난민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 on Refugees)’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181개국이 찬성했으며, 2개국이 반대하고 3개국이 기권하였습니다.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는 난민 발생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컴팩트가 기존의 난민에 관한 국제법 체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은 난민에 관한 책임을 국가들 간에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글로벌 컴팩트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한 예로, 세계은행이 강제이주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자금지원 체제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을 채택하면서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글로벌 컴팩트의 문안은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컴팩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가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했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국가들이 난민들의 권리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하며, 이주민, 난민, 외국인들을 악마취급하는(demonize) 現세태를 비판하고, 난민캠프 보다 포용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ink** UN affirms ‘historic’ global compact to support world’s refugees (UN News. 12.17)  
Global Compact on Refugees: How is this different from the migrants’ pact and how will it help people forced to flee? (UN News. 12.14.)

[메인화면 >>](#)



02

## FEBRUARY

### 6 February

세계 여성할례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of Zero Tolerance to Female Genital Mutilation (A/RES/67/146)

### 11 February

세계 여성 과학자의 날 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 (A/RES/70/212)

### 20 February

세계 사회 정의의 날 World Day of Social Justice (A/RES/62/10)

### 21 February

세계 모국어의 날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A/RES/56/262)

[메인화면 >>](#)



03

## MARCH

### 1 March

무차별의 날 Zero Discrimination Day [UNAIDS]

### 3 March

세계 야생동물의 날 World Wildlife Day (A/RES/68/205)

### 8 March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 20 March

세계 행복의 날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A/RES/66/281)

### 21 March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RES/2142 (XXI))

### 21 March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 World Down Syndrome Day (A/RES/66/149)

### 21 March

세계 숲의 날 International Day of Forests (A/RES/67/200)

### 22 March

세계 물의 날 World Water Day (A/RES/47/193)

### 24 March

세계 결핵의 날 World Tuberculosis Day

### 24 March

모든 인권침해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Right to the Truth concerning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 the Dignity of Victims (A/RES/65/196)

### 25 March

국제 노예제 및 노예무역 희생자 추모의 날  
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of the Victims of Slavery and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A/RES/62/122)

### 25 March

억류되고 행방불명된 활동가를 위한 국제 연대의 날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Detained and Missing Staff Members (A/RES/49/50)

[메인화면 >>](#)



# 04

## APRIL

### 2 April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World Autism Awareness Day (A/RES/62/139)

---

### 4 April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Mine Awareness and Assistance in Mine Action (A/RES/60/97)

---

### 6 April

개발과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의 날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RES/67/296)

---

### 7 April

르완다 제노사이드 반성의 날

International Day of Reflection on the Genocide in Rwanda (A/RES/58/234)

---

### 7 April

세계 보건의 날 World Health Day (WHA/A.2/Res.35)

---

### 22 April

세계 지구의 날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RES/63/278)

---

### 24 April

평화를 위한 다자주의와 외교의 날

International Day of Multilateralism and Diplomacy for Peace (A/RES/73/127)

---

### 25 April

세계 말라리아의 날 World Malaria Day [WHO]

---

### 28 April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의 날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메인화면 >>](#)